

인터뷰

대학생에게서 들다 인문학 강좌 기획단 ‘잠수함토끼들’ 중앙대 광동건(신문방송학 2006) 군

자유인문캠프, 진정한 사유의 장을 열다

남다른 활동을 하는 대학생들 만나 그의 대학생들과 대학생에 대한 정의를 듣는 ‘대학생에게서 대학생을 듣다’의 두 번째 순서로 대학생을 위한 인문학 캠프를 기획하는 기획단 ‘잠수함토끼들’의 중앙대 광동건(신문방송학 2006) 군을 만났다. 실용의 가운데서 인문학을 외치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한솔 기자 ssol@khu.ac.kr

중앙대에 실용의 바람이 분 것은 2008년 두산그룹에 인수된 이후다. 기업의 논리대로 학문을 구조조정 한 중앙대는 여러 의미로 큰 변화를 겪었고 ‘대학 기업화’를 상징하는 학교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했던가, 중앙대에서 인문학을 외치는 학생들이 나타나 활동을 이어오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2010년 겨울부터 방학마다 ‘자유인문캠프’를 진행하고 있는 인문학 강좌 기획단, ‘잠수함토끼들’이다.

귀여운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생각보다 건장한 남자 대학생들이었다. 잠수함과 토끼, 쉽게 연결되지 않는 두 단어로 기획단의 이름을 지은 이유에 대해 광동건(신문방송학 2006) 군은 “예전에는 잠수함에 산소에 민감한 토끼를 태워 산소 잔량을 확인했어요”라며 “그 토끼처럼 대학생이 사회 변화와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잠수함토끼라는 이름을 쓰게 됐어요”라고 말했다.

그런 그들이 기획하는 자유인문캠프의 슬로건은 ‘자기교육 운동, 해방의 인문학’이다. 광 군은 “요즘 대학생에게 자기계발은 누군가에게 강요당해서, 혹은 사용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라며 “자기교육은 그런 자기계발에 반한 대안적 교육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인문학을 통해 자신을 해방하고 진정한 자신이 하고 싶은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자유인문캠프가 인기 인문학캠프로 성장했지만 시작은 미약했다. 대학생 4명, 대학원생 4명이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말 그대로 ‘멘땅에 헤딩’하듯이 시작했다. 하지만 일단 움직이기 시작한 뒤의 준비는 철저했다.

광 군은 “처음 몇 달 동안은 모여서 기획만 했어요”라며 “어떤 강의를 어느 강사에게 들을 것이며 우리의 취지를 알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등을 고민했죠”라고 말했다. 방학 중 비어있는 학교 강의실을 빌려 공간을 해결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강사부터 점차 교수자의 범위도 넓혀나갔다. 홍보는 SNS로 해결했고 올해에는 스스로 ‘잠망경’이라는 간행물도 냈다. 자신들도 알릴 겸 좀 더 다양한 학생의 이야기를 담자는 취지에서다.

올해 초에 열렸던 ‘2012 겨울 자유인문캠프’에는 400명의 수강생이 몰렸다. 대학생이 대학생을 위해 계획한 강좌였지만 일반인의 참가도 적지 않았다. 광 군은 “이 인기는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에 대한 목마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모두가 원하고 있었지만 그 개개인의 흠어진 욕구를 충족시켜줄 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변변찮은 공간도 없어 중앙대 교지인 ‘중앙문화’ 편집실을 자주 빌려 쓴다는 그들이지만 벌써 2년이 넘도록 ‘잠수’를 이어가고 있다. “처음부터 10년을 바라보고 시작했어요.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었다면 아예 시작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신감에 찬 그의 대답이었다.

잠수함토끼들은 수업 구성에도 다양화를 꾀했다. 핵심이 되는 인문학 강좌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제작, 연기워크숍 등 좀 더 폭넓은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수강생과 교수가 모두 만족하는 인문학 강의가 탄생할 수 있었다. “예전에 한 수업에서 교수가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건 알지만 어찌됐습니까. 학점 잘 받으려면 들어야지...’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어요”라며 인터뷰를 지켜보던 안우혁(신문방



대학생은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이다

“밤처럼 어두운 시대이지만 희미한 달빛을 향해 역전 만루 홈런을 꿈꾸며 달려가는 모습이 대학생의 모습을 표현하는 이름이라 생각해서다

송학 2006) 군이 거들었다. 안 군은 “학생도 교수도 학교가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맞춰서 한다는 사실에 놀랐죠”라고 말했다. 자유인문캠프에선 학생은 저렴한 가격에 차별화된 강연을 들을 수 있고 교수도 자신이 강의하고 싶은 대로 커리큘럼을 짤 수 있으니 양 쪽 모두의 감증을 채워줄 수 있었던 것이다.

잠수함토끼들은 캠프가 열리지 않는 학기 중에도 학교의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제가 처음 입학했을 때만 해도 ‘의에 살고 참에 죽자’는 의혈이 중앙대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어요”라는 광 군은 “지금은 학교도 학생도 의혈의 가치를 낫고 구시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너무 아쉬워요”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중앙대의 ‘의혈’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의혈광장’엔 커다란 건물이 세워졌고 그 대신 생긴 깔끔하게 정돈된 잔디밭에는 ‘청룡광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들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고 새내기들을 위한 강연회를 열기도 한다. 광 군은 “새내기들에게 학교의 학과 구조조정 사태나 등록금 문제같은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해서 알리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올해에도 새내기 학교를 열고 교양수업이 왜 돌연 사라졌는지, 새 건물이 지어졌음에도 한 수업에 100명에 가까운 학생이 들어가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를 알릴 계획이라고 한다.

질문 하나하나에 한참을 고민하고 진지하게 대답하는, 그러면서도 위트를 잃지 않는 잠수함토끼들의 모습은 화려한 언변으로 자기를 포장하려는 태도와는 거리가 있었다. 그런 그들은 대학생을 가수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에 빗냈다. “현실적으로 어두운 달밤에 굶주린 우리의 자화상지만 언젠가는 역전 만루 홈런을 치겠죠?”라는 그들에게서 희망을 읽을 수 있었다. 자유인문학캠프를 키워 기획했던 10년을 채우는 것이 목표라는 그들의 인문학 캠프가 이 사회에 앞으로 더 많은 ‘잠수함 속 토끼’를 키워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posco
www.posco.com

포스코와 함께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로 나아갈 인재를 찾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 산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었던
포스코가 친환경 소재 사업과 그린 에너지 사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토털 인프라 사업을 더해 세계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철강을 넘어 글로벌 소재 & 인프라기업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포스코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갈 인재를 찾습니다

2012년 상반기 포스코패밀리 신입사원 및 연구원 모집

• 지원서 접수기간 : 3/12(월) ~ 3/20(화) • 채용홈페이지 : <http://gorecruit.posco.co.kr>
• 참여회사 : 포스코,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CT, 포스코켄텍, 포스코엔텍